마이스터고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54112 전북 군산시 군중길 28	올바른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융·복합 기술인재 양성 **가 정 통 신 문** 교무실 : 730-5500 행정실 : 730-5630	제 2023 - 88호 통지대상 : 1,2,3학년 학생 및 학부모

제목 : 2023년 (단기 4355주년)「개천절」계기 교육 자료 안내

1.「개천절[開天節]」정의 :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10월 3일**).
서기전 2335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2.「개천절[開天節]」유래
개천절의 개천(開天)은 '하늘이 열린다'라는 뜻으로, 기원전 2333년 단군이 고조선을 처음 건국한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은 해마다 10월이 되면 한 해 농사를 추수하고 햇곡식으로 제사상을 차려 하늘과 조상에게 감사하는 제례의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고구려, 부여 등으로 내려왔으며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례의식은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지는데요~ 특히 독립투사들은 민족의 얼과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멀리 상해, 만주 등 해외 임시 정부에서까지 10월이 되면 하늘에 차례를 지내며 민족의식을 고취했답니다.

3.「개천절」제정
1909년 단군을 신봉하는 신흥 종교인 **'대종교'**가 창교됩니다. 교주이며 독립운동가였던 **나철 선생**은 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하고 민족의식을 깨우기 위해 매년 개천절 경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대종교와 함께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삼고, 고조선을 한민족 최초의 국가로 정해 공식적인 음력 10월 3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게 됩니다.
10월을 건국의 달로 잡은 이유는 10월 상달(上月)에 제천의식이 행해졌던 역사적 전통에서 기인하며 3일로 정한 이유는 '3'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운과 길이 따르는 길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개천절은 음력이었는데, 오늘날 개천절이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뀌게 된 것은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부터 입니다**

4. 진행 상황 : 개천절이라 이름짓고 시작한 것은 대종교(大倧敎)에서 비롯한다. 즉, 1909년 1월 15일 서울에서 나철(羅喆: 弘巖大宗師)을 중심으로 대종교가 중광(重光: 다시 敎門을 엶)되자,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매년 행사를 거행하였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개천절 행사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여 경하식을 행했고, 충칭(重慶) 등지에서도 대종교와 합동으로 경축행사를 거행하였다. 광복 후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계승하여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식 제정하고, 그때까지 경축식전에서 부르던 대종교의 「개천절 노래」를 현행의 노래로 바꾸었다.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월 3일이므로 대한민국 수립 후까지도 음력으로 지켜왔는데, 1949년에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양력 환용(換用)심의회'의 심의결과 음·양력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1949년 10월 1일에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거행하게 되었다.

5. 현재 : 대종교에서 행하던 경하식은 국가적 행사에 맞추어 양력 10월 3일에 거행하고, 제천의식의 경우만은 전통적인 선례에 따라 음력 10월 3일 상오 6시에 행하고 있다.
이 날은 정부를 비롯하여 일반 관공서 및 공공단체에서 거행되는 경하식과 달리, 실제로 여러 단군숭모단체(檀君崇慕團體)들이 주체가 되어 마니산의 제천단, 태백산의 단군전, 그리고 사직단(社稷壇)의 백악전 등에서 경건한 제천의식을 올리고 있다.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2023. 9. 20.

군 산 기 계 공 업 고 등 학 교 장